

## PA-72

**논 콩 재배시 이용가능 등록제초제 선발**장현수<sup>1\*</sup>, 배희수<sup>1</sup>, 안승현<sup>1</sup>, 윤종탁<sup>1</sup>, 김육한<sup>1</sup><sup>1</sup>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,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**[서론]**

최근 쌀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논이용 발작물 재배면적을 확대 추진하고, 또한 PLS 시행으로 농약의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. 따라서 발작물인 콩을 논에서 재배할 경우 잡초발생 양상에 대한 관리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. 논 콩 재배시 제초제별 방제가, 수량 등을 살펴보았다.

**[재료 및 방법]**

공시재료는 콩(선풍)으로 6월 25일에 파종하였다. 파종 3일 후 알라클로르, 에스-메톨라클로르, 에탈플루랄린을 처리하였고, 화분과 잡초 3~5엽기에 페녹사프로프-피-에틸과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을 체계처리하였다. 토양처리제 처리시 토양수분함량에 따른 처리효과를 보기 위해 상대적 건답조건(15.8%), 습답조건(21.3%)을 만들어 각각 처리별 비교를 하였다.

**[결과 및 고찰]**

토양처리제간의 비교에서 에탈플루랄린은 53%의 낮은 방제가를 보인 반면, 알라클로르, 에스메톨라클로르는 90% 이상의 높은 방제가를 보였다. 건답, 습답 비교간에서도 습답에 비해 건답조건에서 모든 처리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방제가를 보였다. 토양처리제와 경엽처리제의 체계처리에서는 ‘알라클로르 + 페녹사프로프-피-에틸’이 92%이상의 높은 방제가를 보였다. 수량 전체를 비교하였을 때, 건답조건에서 ‘에스-메톨라클로르 +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’ 처리구가 351kg/10a의 수량을 나타내어 가장 수량이 높았으며 습답조건에서는 ‘알라클로르 +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’ 처리구가 271kg/10a의 수량으로 가장 높았다. 이 두 최고 수량간의 차이는 80kg/10a로 보여 토양처리제 처리시 토양 조건을 건답으로 유지하는 것이 수량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.

**[사사]**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(사업번호: PG013518022018)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.

\*주저자: Tel. 063-238-5273, E-mail. janghs331@korea.kr